

안산시, 종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서 대통령 표창

행남곡김양식 자율관리어업공동체도 장관표창
전국 1,147개 공동체 중 안산시 2곳 동시 수상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종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 전국평가 최우수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행남곡김양식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1,147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추천과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종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TAC)·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민청이 품종의 지역 특화 생산 및 수출 기반 구축 ▲공동판매 및 간이 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귀어인 유입을 위한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 등 자율적 어업관리와 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평가 받았다.

행남곡김양식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장환경 정화 및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 ▲김 양식어장 휴식년제, 유기한 김 활성처리제 사용, 친환경 부표 사용 등 친환경 김양식 기반 확립 ▲자체 교육 및 상품 개발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조미김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김 양식업의 품질 향상과 어촌공동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동시 수상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행정 지원 및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루어낸 자율관리어업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 인터뷰 기사 10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와 안산시 어업인 등 관계자들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市, 제22기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출범

141명의 신규 자문위원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

안산시는 19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141명의 신규 자문위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2기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는 앞으로 2년간 지역 민·관·교육기관과 연계한 통일 공감 활동, 시민 소통 프로그램, 청년·다문화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나종찬 신임 협의회장은 김기백 이임 회장과 제21기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산에서부터 평화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산시는 19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2년간 141명의 신규 자문위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윤성용 기자

이민근 시장은 "민주평통은 국민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지역사회와 시민을 연결하는 가로교 역할을 수행하는 뜻깊은 기관"이라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이어 "청년과 다문화 구

성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공감 사업과 시민참여형 통일교육 등 민주평통과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신인감독 김연경 주말 마지막 방송 상록수체육관서 최종전

안산시는 오는 23일 안산시 출신 배구 황제 김연경의 팀 창단기를 그린 MBC '신인감독 김연경'의 마지막회가 방영된다고 20일 밝혔다. '신인감독 김연경'은 프로 무대에서 방출되거나, 프로 진출을 꿈꾸는 실업팀 선수 등 각자의 이유로 '언더독'이 된 선수들이 신인감독으로 돌아온 김연경과 함께 성장하는 팀 프로젝트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김연경 및 MBC와 '안산시 도시브랜드 제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상록수체육관 대관 및 촬영 지원 등 '신인감독 김연경'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현재 '신인감독 김연경'은 5주 연속 TV·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비드라마 부문에서 5주 연속 화제성 1위(일요일)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오는 23일 방송되는 '신인감독 김연경' 마지막 회의 무대는 안산 상록수체육관이다. 이날 창단 첫 공식 직관 경기의 결과가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주 방송에서는 김연경과 '필승 원더독스' 선수들이 안산의 관광 명소 대부도 방어머리 해변을 찾아 오랜만에 팀 휴식을 즐기고 결의를 다지는 등 기대를 높였다. '신인감독 김연경' 마지막회는 23일 밤 9시 10분에 방영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 출신 배구 스타인 김연경 감독의 성공을 위한 지원이 유의미한 결과에 부뒀한 마음이며, 앞으로 배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며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1천 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 명단 공개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의 명단을 신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업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안산시 명단에 오른 124명의 체납액은 40억 2,900만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은 39억 7,700만 원(개인 77명, 법인 44개 업체)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5,200만 원(개인 2명, 법인 1개 업체)이다.

정다운 기자
jdudju000@nate.com

‘대부도 24시 공정 감시단’ 단원 모집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전, 보다 나은 삶의 질 을 향상하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지켜 나갈 대부도저널 산하 ‘대부도 24시 공정감시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 책임감 있고 활동적이며 성실한 분
 - 지역 안전, 환경 감시에 관심이 많은 분

- 모집기간
2025.11.20(목) ~ 마감 시 까지

- 모집인원
00명

- 회원혜택
 - 감시단 단원증 발부
 - 대부도 24시간 공정 감시단 자동차 스티커 발부



- 활동
 - 대부도 지역 24시간 모니터링
 - 공공시설 및 도로, 하천, 공유지 및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행위들 감시
 - 불법투기, 불법행위 감시 및 기록
 - 언론·행정·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방법
 - 전화 (032-880-9994) 또는 온라인 접수 (dj250407@naver.com)

* 대부도 24시 공정 감시단 문의 : 010-3199-4992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대부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부도. 우리가 지켜냅시다”

제26회 안산시 노동자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안산시는 지난 15일 화랑유원지 마사토축구장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6회 안산시 노동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산시 노동자 체육대회는 노동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행사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과 연대의 상징적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는 한국노총 안산시지부(의장 방운제)가 주최·주관했으며, 노동자 간의 화합과 연대 강화,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족구, 줄다리기, 단체출발기 등 조직력 강화 종목과 노동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슈팅북북북', '풍선만들기', '어린이 게임'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이 운영됐다.

특히, 다문화 체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바자회가 함께 운영돼 '노동과



이민근 시장이 15일 화랑유원지 마사토축구장에서 개최된 '제26회 안산시 노동자 체육대회'에서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나눔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산'의 의미를 더했다.

이민근 시장은 "노동자 여러분의 땀과 연대가 안산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모든 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다운 기자

안산시, 더~출생 캠페인 우리는 미래다 대규모 행진 개최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20일 안산호수공원에서 '출생 캠페인 우리는 미래다'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는 지난 20일 안산호수공원에서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정)가 주최한 '출생 캠페인 우리는 미래다' 행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등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미래다'라는 구호와 함께 공원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출생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더 친구, 더 동생, 더 사랑'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와,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희망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출생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은정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시와 협력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이번 행사가 생명과 가족의 가치를 널리 나누고,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성호박물관·최용신기념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선정

안산시는 시가 운영하는 성호박물관과 최용신기념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 각각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제도는 공립박물관의 운영 역량을 3년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4회째 시행됐다.

인증심사에서는 ▲박물관 전시 ▲소장품관리 ▲교육프로그램 ▲학술사업 ▲사회적공헌도 ▲인력운영 등 다양한 방면의 지표를 심사한다. 종합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는 제4회 평가에서 성호박물관

은 총점 89.1점, 최용신기념관은 82.6점을 받아 인증을 통과했다. 경기도 내 평가대상 공립박물관 49개소 중에서는 성호박물관이 11위, 최용신기념관이 23위를 차지했다.

성호박물관은 이번 인증으로 4회 연속 인증에 성공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최용신기념관은 근소한 차이로

인증받지 못했던 지난 결과를 개선해 인증에 성공했다.

이민근 시장은 "시 박물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을 맺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곳곳 박물관에서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NH농협 안산시지부·안산농협서 김장김치 200박스 기탁받아



NH농협 안산시지부와 안산농협 관계자들이 20일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장 김치 200박스(박스당 10kg)를 기탁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안산시는 지난 20일 NH농협 안산시지부와 안산농협으로부터 김장 김치 200박스(박스당 10kg)를 기탁받았다고 21일 밝혔다.

NH농협 안산시지부와 안산농협은 매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산시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안산시 관계자와 NH농협 안산시지부(지부장 주원식) 및 안산농협(조합장 박경식) 조합장 및 조합원 등이 참석해 이웃사랑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원식 지부장과 박경식 조합장

은 "이번 나눔 행사를 함께 준비해 준 조합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NH농협 안산시지부와 안산농협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탁해주신 김장김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다운 기자 jdujdu000@nate.com

市, 경기도 무형유산 잿머리 성황제 개최

안산시는 지난 20일 단원구 성곡동 해봉산 정상에 소재한 잿머리 성황당에서 '2025 잿머리 성황제'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잿머리 성황제는 경기도 무형유산 제58호로 단원구 성곡동 잿머리에서 전해오는 마을의 공동 제사다. 매년 음력 10월 초순 길한 날을 잡아 옛 성곡동 주민들 중 심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고려시대 외교 책사 서희(徐熙)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바닷길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것이 유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안산시의 발전 및 화합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이번 성황제에서는 산신(山神)을 맞이하는 산바래기를 시작으로 술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헌수와 헌사다. 매년 음력 10월 초순 길한 날을 잡아 옛 성곡동 주민들 중 심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현장에는 와리품물놀이, 경기민요 등 전통민속놀이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상호문화도시 정책 논의 시 승격 40주년 포럼 추진

안산시는 지난 14일 안산시청 상 황실에서 '2025년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추진 성과 점검과 함께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 다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상호문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호문화도시

조성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상호문화도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핵심 과제로 ▲유럽평의회-대한민국-일본 상호문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안산시 승격 40주년 기념 '2026 상호문화도시 포럼' 개최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희재 기자

박태순 의장 요구 결실... 시화호 상류 침식·홍수 조사 용역 본격 착수

“시화호 안전 지킨다”

박태순 의장 주도한 100억 규모 침식 대응 사업 시동

시화호 상류 하천 사면 침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조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1월 19일 오전 10시, 시화조력관리단 1층 PT룸에서 열린 ‘시화호 상류 하천 사면 침식 및 홍수 영향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환경재단, K-water 관계자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K-water)에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력히 요구해 관철된 사업이다. 하천 침식 문제는 안산갈대습지 진입로(제방) 하부 구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 침식 피해가 실재함이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호안 설치 등 보강 공사를 위해선 정확한 조사와 홍수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용역은 (사)한국수자원학회가 수행하며, 기간은 2025년 9월 17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용역비는 1억 1,900만 원이며, 최종적으로는 약 100억 원 규모의 보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박태순 의장의 꾸준한 요구가 K-water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사업이 현실화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일정과 기대 효과를 논의했다. 이번 용역이 시화호 상류 침식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화호 상류 하천 사면 침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조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1월 19일 오전 10시, 시화조력관리단 1층 PT룸에서 열린 ‘시화호 상류 하천 사면 침식 및 홍수 영향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환경재단, K-water 관계자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오른쪽이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고 왼쪽은 안산시 김민한경녹지국장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 개최



사진은 17일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정례회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내년도 회의는 98일간으로 계획

안산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5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정례회 본회의는 11월 24일과 12월 17일, 12월 18일 등 세 차례 개최되며, 상임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첫 회의를 가

진 뒤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게 된다.

회기 동안 다룰 부의 안건은 조례안건 29건과 일반 안건 15건 등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54일)와 임시회 4회(44일) 등 총 98일간 여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최진호 위원장은 “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5일 동안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짓는 본예산안과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내일 있는 심사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년도 의회 일정 또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의회,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 운영

18일 주민 20여명 참여해 지방 의회 이해 폭 넓혀 박태순 김재국 박은경 의원 주민들 맞아 소통의 시간도

안산시의회가 최근 단원구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를 찾은 너비울마을 주민 20여명이 의회가 운영 중인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박은경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 일행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의회사무국 측으로부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안건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주민들 다수는 의회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게

돼 뜻 깊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견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의회를 더 많이 알고 의회를 더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 문턱을 낮추는 노

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회는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비회기 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부합 평가로 심의 통과 연구 활동 결과 공감대 형성

안산시의회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활동한 ‘페어플레이 안산’과 ‘소소한 연구모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등 3

개 연구단체의 활동 최종보고서를 심의해 통과 판단을 내렸다.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 7명 전원이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뒤 첫 심의위원회였던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의 활동 보고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과 적합성 △연구 내용의 충실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의회 내에서는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을 모색한 ‘페어플레이 안산’(대표의원 박은경)과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을 연구한 ‘소소한 연구

모임’(대표의원 현옥순),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 전략을 연구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 등 3개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을 벌였다.

이들 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10

월까지 8개월간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 우수 기관 현장 방문, 연구용역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했으며, 10월 말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 봉 도 앞 바다 뷰 명품 식당



- ◆탁 트인 바다뷰 ◆시원한 술발정원
- ◆운치있는 야외테라스 ◆반려동물 놀이터
- ◆최근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완비

- * 70평 1층 식당 * 보증금 3,000만원 / 월 250만원
- * 시설비 2,000만원 * 전전세 잔여기간 39개월

김선중 공인중개사 ☎ 010-3199-4992

향기로 피어나는 예술... 제4회 박병옥 한란전

12월 19일까지 한달간

겨울의 문턱에서 희귀한 아름다움과 깊은 향기를 품은 '제4회 박병옥 한란전'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단원구 대부황금로 금향난원 내 갤러리 문향(단원구 대부황금로 905-1)에서 열린다. '향기로 말을 거는'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한란(寒蘭)의 고요한 매력과 예술적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리다.

한란은 겨울에 꽃이 피는 상록성 난초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자생하며 은은한 향과 다채로운 색 변이가 특징이다. 음지에서 자라는 특성에 '숨은 보석'으로 불리며 일본·중국·타이완 등지에도 분포하는 난방계 식물이다. 전시를 여는 박병옥 작가는 난(蘭)에 대한 전문 지식뿐 아니라 미술과 서예에도 깊은 조예를 갖춘 다재다능한 예술가다. 현재 소운서실과 금향난원을 운영하며 홍익대학교에서

미술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의 남편 김희대 전 포스코휴먼스 대표 역시 한난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 부부가 함께 난을 기르고 연구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향기와 예술적 감성을 하나의 공간에 담아내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정취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032-880-86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2025년 마지막 플리마켓 개최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중증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따뜻한 나눔의 장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는 2025년, 마지막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준비한 의류, 먹거리 등을 판매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산시 다문화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플리마켓은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참여자들의 다양한 활동 성과를 선보이는 미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참여자들이 그동안 진행해온 미술, 도예, 스마트폰 사진, 인권 아카데미 활동에서 제작한 작품과 사진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참여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흙을 빚어 만든 도예 작품,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상 속 아름다움을 포착

한 사진들은 장애인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인권 아카데미 과정에서 제작된 포스터와 메시지 작품들도 전시되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예쁜 말' 캘리그라피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시민들이 직접 긍정적인 문구를 써보며 장애 인식 개선에 동참했으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사업 홍보 부스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 비영리법인 "희망커뮤니티"가 참여해 봉어빵 재능기부 나눔 활동을 펼쳤고, "더원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하여 플리마켓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플리마켓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되었다.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는 수익금으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 이불 30세트를 전달하여 다문화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으며, 지역 내 다문화기관 및 아동센터 후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했다.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는 2025년, 마지막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소명원 시민기자 sosibang@naver.com

행사 관계자는 "이번 플리마켓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며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는 앞으로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소명원 시민기자 sosibang@naver.com

市, 혁신적 스포츠 정책 성과 인정 전국 리더 도시로 올라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맨 앞줄 가운데)이 '2025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리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코리아 스포츠 진흥대상’
리더 부문 대상 수상...
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안산시는 '2025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시상식에서 리더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은 국내 스포츠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해온 기관·단체·기업·개인 등 각 분야의 우수 공로자들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7년째를 맞았다. 리더 부문 대상은 특히 지역 체육진흥과 혁신적인 스포츠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모범 사례를 제시한 기관에 수여 된다. 안산시는 올해 초 '모두가 즐기는 체육, 스포츠로 하나 되는 건강한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스포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민 중심의 스포츠 도시' 조성에 주력했다. 특히, 시는 단순한 체육활동 지

원을 넘어, <JTBC> 문화야찬다4, <MBC> 신인감독 김연경 등 방송 콘텐츠와 스포츠·문화·관광을 융합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도시 경쟁력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스포츠 마이스(MICE)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유도 김하윤 선수, 펜싱의 서지연·김정미 선수 등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안산시 위상을 높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안산시 스포츠 정책의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음악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서로 응원하는 무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안산 <안녕!!오케스트라>가 오는 12월 5일(금) 저녁7시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2025년 꿈의 오케스트라 안산 안녕!!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식부터 영화 OST, 전래민요,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담아낸 특별한 무대로 구성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하여 지역 시민 누구나 감동을 나눌 수 있다. '안녕!!오케스트라'는 2013년 창단 이후 음악으로 아이들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협력과 배려를 배우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왔다. 김태훈 대표이사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해온 과정이 무대에 그대로 담겨 있다"며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파트별 연습, 합주수업, 공연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역량뿐 아니라 사회성, 공동체 의식 등을 함께 키워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그 성장을 관객 앞에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다. 올해 정기연주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감동을 더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적 연주로 사랑받아온 박종성은 '안녕!!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한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재)안산문화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 '안녕!!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청소년이 음악을 중심으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한 아이들은 음악적 성취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협력적 태도, 자존감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으로 구성되어 가족 단위 관객은 물론 클래식에 애호가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연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031-481-4025, 031-481-4029)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연합워크숍 열어

안산시는 지난 19일 안산대학교에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연합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합워크숍은 관내 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행사에서는 안산시장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돼 책임감과 헌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종사자 교육에서는 어르신과의 소통 강화 방법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종사자들의



이민근 안산시장(맨 앞줄 가운데)이 19일 안산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연합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노력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

께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고잔동 지사협, 중장년 단독가구 돕기 행사 진행



단원구 고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중장년 발굴·지원사업 대상자들과 지사협 위원이 함께하는 김장 채취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김장 재료 준비, 양념 버무리기 등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했다.

고재형 지사협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고립·은둔 위기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며, 주민 누구나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고잔동장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이번 채취 활동이 정서적 지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을 예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사랑을 전하는 대부동,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단원구 대부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8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00여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부동 새마을부녀회, 대부동 직능단체, 시화사업본부 시화조력관리단, 대부복지센터, 수협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 전 직접 농사지은 무와 파 등을 수확해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고 당일 배추 800여 포기 김장을 직접 버무리 준비했다.

김은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오늘 김

장에 참여해 준 대부동 직능단체 회원들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시화조력관리단, 대부도복지센터 및 수협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정성을 담은 김치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준비해 준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리며,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온 정으로 전달된 김장김치가 힘이 되면 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백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랑의 불고기 나눔



단원구 백운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19일 지역 내 독거노인 2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불고기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선물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불고기와 감귤을 25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불편 사항도 함께 살폈다.

남명관 바르게살기위원장은 “연말을 앞둔 시기에 외로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이런 나눔 활동이 지역복지 전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행사를 준비해주시는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본오1동, 반월신협으로부터 후원물품 전달받아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반월신협협동조합으로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생필품 50세트를 기탁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 활동은 신협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반월신협은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필요한 가정에 학용품과 이불, 라면 등 기본 생필품을 전달했다.

반월신협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반월신협 관계자는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작은 시작이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웃이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신협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judu000@nate.com

선부2동, 목양교회로부터 쌀 150포 기탁받아



단원구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목양교회로부터 저소득가구를 위한 쌀 150포를 기탁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선부2동에 위치한 목양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도들의 정성과 후원을 모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쌀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광남 목양교회 담임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목양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성껏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내 복지지원 발굴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선부2동 기부 릴레이 92호’에 등재되었으며 기탁된 쌀은 지역 내 저소득가정과 독거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신길동, 성민의원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기탁받아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성민의원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100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성민의원은 단원구 원곡동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어르신 건강 상담 및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획됐다.

전달받은 물품은 홀몸 어르신, 한부

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며,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과 안부 확인 등 지속적인 복지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겨우내 꼭 필요한 김장김치 후원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몸소 실천해 주신 성민의원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배풀어주신 따스한 마음을 잘 전달해 지역 주민들께 큰 감동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대부도저널

“ 운영위원 ” 을 모십니다 !

대부도저널은 “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 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대부도와 안산시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언론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부도저널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 대부도와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분은 연락주십시오.

대표전화 : 032-880-9994
핸드폰 : 010-4900-4152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저널



법률사무소 화쟁
PARK & KIM LAW OFFICE

약력
現) 법률사무소 화쟁 대표변호사
現)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고문변호사
現) 경기도 운수연수원 외 다수법인체 법률고문변호사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경기도 경찰청 민간교통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前)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前)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KT 고문변호사
前) 서울마주협회 고문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및 24회 동창회장
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지역부총재, 법제위원장, 감사
前)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법과대학 상임이사

박태훈 대표변호사 : 010-7929 8012

[주] 변호(담당) 전문 분야
◆ 형사 소송
▶ 성범죄(강제추행,유사강간등) 명예훼손(사자) 및 모욕
▶ 강력범죄(상해,폭행치상), 재산범죄(사기,횡령,보이스피싱 등)
▶ 학교폭력(장보망 허위사실유포 등) 및 중대재해법(기업 및 법인 포함)
▶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음주운전) 사건-해양포함

◆ 형사 소송
▶ 대여금반환청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
가압류가처분, 각종 기업소송 및 자문
▶ 중대 교통사고(손해사정)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물,인적)
※운전자보험(변호사 방어비용 선임) 및 면허행정소송 등

◆ 행정 소송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교섭변경신청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자문
▶ 공무원행정소송 등



다플러스원 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정승수
(건축사 | 행정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80 부원프라자 401호
TEL +82.31.482.2500 FAX +82.31.486.2500

Mobile +82.10.7344.2457
E-mail jss1188@naver.com
jss1188@dplusone.co.kr

대표이사 정승수
(건축사 | 행정사)

다플러스원 dplusone.com

[주요경력]
· 경기도 지방공무원 2급(지방이사관 명예퇴직)
· (전) 안산시 도사무택실장
· (전)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장
· (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장
· (전)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 (전)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전) 상록구 · 단원구 도사무택과장
· (전) 안산시 선부2동 · 원곡 1동장 역임
· (전) 성남시 신도시기획관실 근무(92~96)
·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 (현)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현) 시흥시 건축심의위원
·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자문위원
·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 (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

광고문의

**대부도저널**

032 - 880 - 9994
dj250407@naver.com

프리미엄 선물용 타올
맞춤제작, 로고자수, 감성포장
KC인증/OEKO-TEX 1등급, 유아안전인증

1. 행사 답례품 :기업, 관공서, 학교, 교회
2. 숙박업 호텔 리조트용, 가정 생활용

J&CROSS 대표 최재원 M:010.7259.2177

전원주택 구함
10억원대의 전원주택을 구합니다.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대부도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제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히든펜션 HIDDEN PENSION
안산의 힐링 펜션

히든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아티네펜션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T. 032-710-4340

대부도 바움펜션

황진 M. 010-7741-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2(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T. 032-885-5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T. 032-886-89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중 T. 0507.1331-13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반달섬
분양 임대 매매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웅진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섬을 넘어 바다의 가능성으로 도약”

웅진군은 19일 열린 제253회 웅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4,330억 원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시책을 발표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05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통·관광·농수산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지속 가능한 군정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

군은 특히 △백령공항 건설 추진과 대형 여객선 건조, 신도 평화대교 개통 대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신축·보강 등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확대, △농·수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섬 경제 경쟁력 강화, △‘365일 머무는 섬’ 조성을 위한 관광 명소 확대



문경목 웅진군수가 19일 열린 제253회 웅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4,330억 원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등 2026년 군정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문경복 군수는 “2026년은 웅진이

위기 속에서 다져온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2만여 군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덕적면 능동자갈마당 환경정화 활동 실시



웅진군 덕적면은 20일, 복리 능동자갈마당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정다운 기자

웅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20일, 복리 능동자갈마당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화 활동은 해군 부대원, 이장협의회, 의용소방대원, 면 직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광객 등 방문객이 많이 찾는 능동자갈마당 일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 약 10톤을 수거하는 정비 작업으로 진행됐

다.

김남우 덕적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덕적면에 애정을 갖고 환경정화 활동에 힘써주신 해군 부대원, 이장협의회, 의용소방대원,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한 덕적면 환경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ju000@nate.com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맞아 절주·금연 캠페인 운영

웅진군은 20일,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영흥 늘푸른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진행하는 CPR 교육과 연계해 ‘절주·금연 캠페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웅진군의 높은 흡연율(28.6%)과 고위험음주율(23.4%) 개선을 위해 기획됐으며,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활동으로 추진했다. 또한, CPR 교육 참여자뿐 아니라 ‘영흥면 위크온’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문자 안내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였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음주폐해 체험존(음주고글, 알콜패치 체험 등) ▲일산화탄소 측정 및 흡연 위험성 상담 ▲금연·절주 클리닉 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 제공 ▲홍보



웅진군은 20일,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영흥 늘푸른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진행하는 CPR 교육과 연계해 ‘절주·금연 캠페인’을 운영했다. 윤성용 기자

리플릿 및 금연·절주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참여형 체험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영흥면 주민 대상 응급처치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웅진군은 20일, 영흥 늘푸른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정희재 기자

웅진군은 20일, 영흥 늘푸른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이 초기 대응자로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RCY) 인턴지사의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심정지 환자 대응 절차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대처법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별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닌 마네킹을 활용한 흉부 압박 실습, AED 모형기 작동 훈련, 실제 상황을 가정한 참여형 실습 위주로 교육이 구성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었으며, 강사진은 잘못된 응급처치 사례를 교정하는 등 주민들이 실질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주민 모두가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웅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전문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은 초기 대응자의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에 달려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면 단위 순회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박해련 보건소장은 “이번 절주·금연 캠페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군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

앞으로도 지역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생활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우리은행 선부동지점
우리은행 안산금융센터
우리은행 안산남지점
우리은행 상록수지점
우리은행 안산외국인특화지점
해너미마을홍보관 구경호 본부장
경기도정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웅진군 기획감사실 홍보팀
웅진군의회 의회사무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 광고지원팀
보은용사준(주)전력사업소
보은용사회

김 현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옹혜인 국회의원
양문석 국회의원
선현우 시의원
강태영 도의원
김동규 도의원
김태희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
장운정 도의원
이은미 도의원
대부동 동장
그랑포도와의너리
나라캠핑장
안산제일로타리클럽

웅시
화정식당
해신마린
서울안심지과
포도나무공인인증가사
대한측량설계사무소
대부명성한의원
럭키알인마트
명성종합토건
중현어촌체험휴양마을
그린건축사
왕금남시티
이조갈비
왕금목장
G 마트

김선중	김민영	공미숙	차준경	유재용
유강민	김민정	이재선	오준태	빈호준
이정숙	김건민	김국진	김관중	정병국
문기정	양임배	오성숙	양금순	
박영철	모연구	김용현	이병철	— 끝 —
김영란	문상필	이한기	조규현	
이길재	김경희	김시경	박정탁	
이상성	유재용	이승용	박용복	
박익자	김중윤	정안순	조재숙	
임원섭	김영덕	김혜순	김장식	
정순미	백무자	장해연	신준선	
김철중	강영복	이승창	최옥진	
박익락	송원영	박연배	조기열	
정잔빈	이지연	이한중	왕 진	
채만식	이정임	최병희	조부형	

“대부도저널 – 일어나병원 업무교류협약 체결… 지역 의료서비스 한 단계 도약”

“트레킹도 안심… 일어나병원, 대부도저널과 손잡고 진료비 감면 하기로 상호 협의”

대부도저널(대표이사 윤성용)과 척추·관절 전문병원인 일어나병원(대표원장 문강석)은 17일 업무교류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부도저널 직원과 저널트레킹 투어 회원들은 일어나병원 이용 시 다양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윤성용 대표이사는 “트레킹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믿을 수 있는 병원과 협력하게 되어 큰安心이 된다”며 “우수한 시설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일어나병원과의 협약은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강석 대표원장은 “개원 후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 병원을 운영해 왔고, 이제는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는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대부도저널 관계자 대상 비급여 항목 감면 △외래 MRI 검사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척추·관절 진료료가 많은 트레킹 활동 특성상 필요한 혜택들이 알차게 구성되었다는 평가가다.

일어나병원은 의료 전문성을 갖춘 병원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 출신 수련의 2명이 근무하며 한국 의료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더불어 안산·시흥·화성 등 인근 지역의 다문화 가족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척추관절 특화병원인 일어나병원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병원’, ‘척추·관절 치료의 표준 확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환자들은 “휠체어 타고 들어왔는데 걸어서 나왔다”며 치료 효과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일어나병원’이라는 병원명에 대한 긍



대부도저널 윤성용(왼쪽) 대표이사와 척추·관절 전문병원인 일어나병원 문강석 대표원장이 17일 일어나병원 회의실에서 업무교류협약(MOU)을 체결하고 업무교류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정적인 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유이다.

병원은 척추센터, 관절센터, 내과센터, 치료센터, 검진센터 등 전문센터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척추센터는 6단계 원인치료 시스템으로 유명하며, 1~3단계에서는 비수술 치료, 4~6단계에서는 미세·최소침습 척추수술을 시행한다. 검진센터는 국가건강검진은 물론 개인 맞춤 종합검진도 가능하며, 내과센터와의 긴밀한 협진 시스템으로 빠르고 편안한 진료 연계가 가능하다.

일어나병원은 2023년 4월 개원했으며, 시흥시 황고개로 472(장곡동)에 위치한 단독 병원 건물 전체(2~5층)를 사용하고 있다. 총 80병상 규모로 지역 내 중·대형급 의료기관으로 평가된다.문의전화는 031-317-0111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부도저널과 일어나병원은 지역 주민과 트레킹 참여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 주4.5일제 참여기업 ‘파트너스 데이’ 열고 소통 나뉘

함께 만드는 변화, 함께 나누는 성장...노동시간 혁신 사례 공유의 장 마련

경기도는 21일 수원 노보텔 엠베서더 샵페인홀에서 ‘주4.5일제 참여기업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도내 참여기업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트너스데이에는 주4.5일제 도내 참여기업의 노사 대표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 등 총 22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함께 만드는 변화, 함께 나누는 성장’의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참여기업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 발표 ▲업종별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킹 등 실제 기업 운영 경험과 향

후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특히 참여기업과 컨설팅 업체에서 노동시간 단축 운영 성과와 IT(정보통신 기술) 솔루션 도입 사례 등을 발표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갈할 수 있는 변화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전했다

덧붙여 “기업 간에 운영 성과와 고민,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앞서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 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

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라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사립 고등학교의 공사 계약 내역을 사례로 제시하며 “계약액·집행액·실제 변경액이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제출됐다”며, “도민이라면 서류상 수천만원의 차액을 두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사립학교 감사 조치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0건이 넘는다”며, “유명 학원 감사 과외 제공, 임기제 교사의 학생 성추행 등 최근 언론 보도만 봐도 관리 사각지대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추진한 AI(인공지능) 기반 유아평가 사업에 대해 “아이들의 사진과 발달기록을 외부 AI 시스템에 학습시키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광고 / 사업국 (남, 여)	0 명	경력사항 : 신입 / 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고졸이상 나이 : 30 ~ 60대 기타 : - 대부도 및 안산 거주자 우대 - 차량소지자 우대 -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서류제출 : E-mail dj250407@naver.com

※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 97, 3층 (대부북동)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대통령표창은 종현어촌계 전체의 성과”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최우수상, 김부열 위원장

안산시 종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 어촌공동체의 자율적 운영 능력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실천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종현어촌계는 지난 수년간 어장 정화, 조업 질서 확립, 품종 특화와 수익 구조 개선 등 공동체 중심의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왔다. 특히 2022년부터 김부열 계장이 다시 공동체를 이끌며 어촌계의 단합을 회복하고 활동의 내실화를 추진한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본지는 이번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듣기 위해 20일 구봉커피숍에서 김부열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국 1,147개 공동체 중 최우수...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종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전국 1,147개 공동체 가운데 최우수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남곡김양식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장관표창을 함께 수상하면서 안산시는 두 개 공동체가 동시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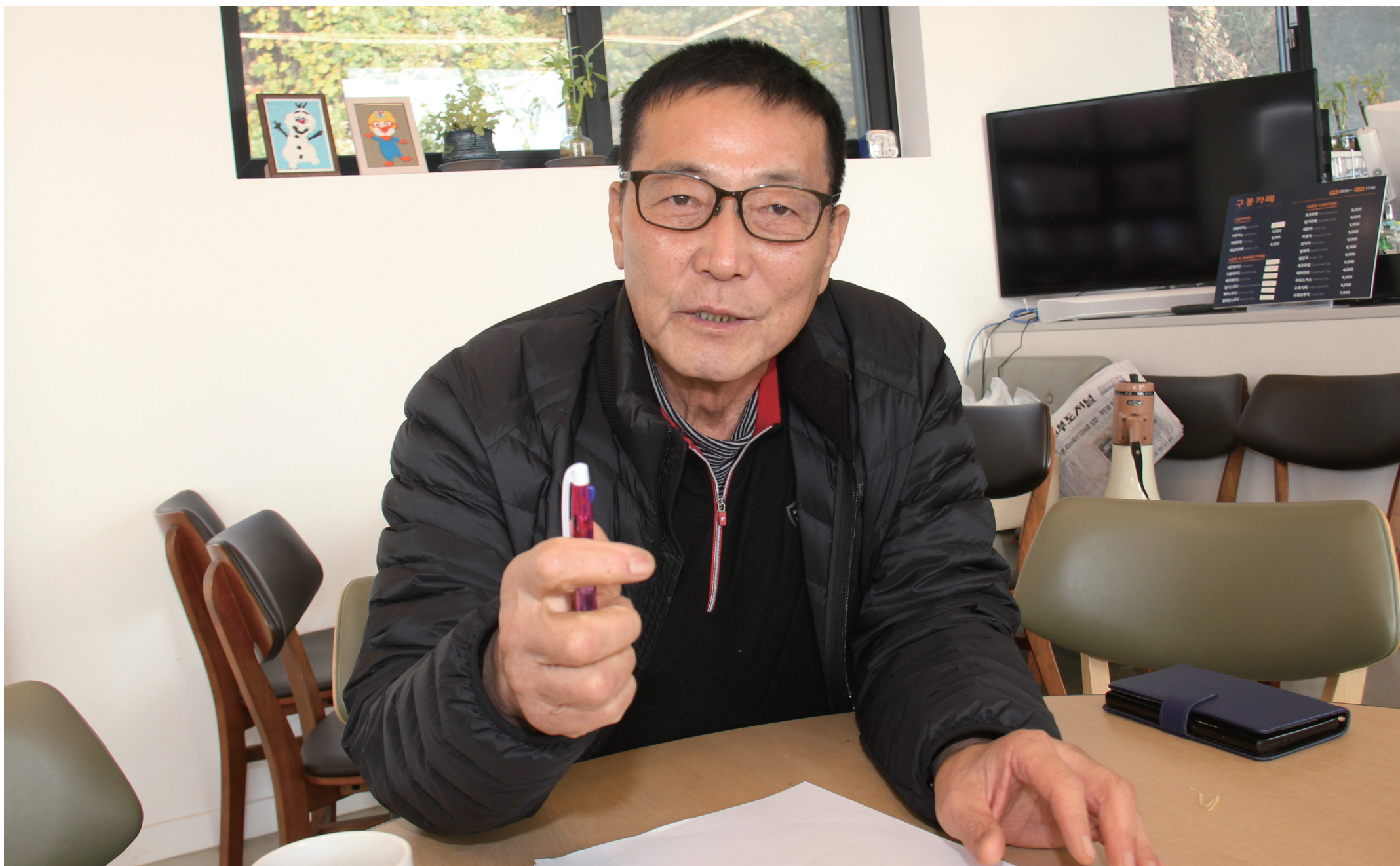
수상 배경에는 ▲TAC 및 금어기 자율 강화 ▲민행이 품종의 지역 특화 생산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 통한 수익 증대 ▲귀어인 유입을 위한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 등 종현 어촌계의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어업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김부열 위원장은 “상은 제가 아니라 종현어촌계원 모두가 받는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참여해 준 덕분에 단체활동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만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춤했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

종현어촌계는 2002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가입해 2009년까지 약 4억5천만 원의 자율관리육성사업비를 투입하며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김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계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공동체는 점차 활력을 잃었다. 이후 2022년 6월까지 10년간 계장이 네 번이나 바뀌며 조직이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다.

김 위원장이 2022년 7월 다시 어촌계장으로



종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 어촌공동체의 자율적 운영 능력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실천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20일 종현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내어 있는 구봉커피숍에서 김부열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소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복귀하며 변화가 시작되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계원들과 일일이 만나 의견을 듣고 단합부터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장청소와 관리 활동을 강화했고, 공동체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며 다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3년부터 2025년 전반기까지 연속적인 평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올해 대통령표창이라는 큰 성과로 연결되었다.

행정과의 협력도 중요한 힘... “대부해양본부·해양수산과에 감사”

김 위원장은 이번 성과가 공동체 내부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대부해양본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해

양수산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행정이 현장을 밟고 지원해 준 덕분에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종현어촌계는 111가구 중 73명이 활동계원으로 등록돼 있다. 일부는 원로 계원으로 남아 마을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 간 소통도 공동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종현에서 구봉도로... ‘어촌체험휴양마을’ 명칭 변경 준비

최근 종현어촌계는 어촌체험휴양마을 명칭을 ‘구봉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해솔길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구봉도는 잘 알고 있지만 종현도는 잘 모릅니다.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체험객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천천히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새로운 목표 향해

김 위원장은 종현어촌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그동안 이뤄낸 것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정착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종현어촌계마을은 오는 25~26일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어촌계마을을 전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또 한 번의 경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에는 대통령표창 수상을 기념해 종현어촌계 식당에서 마을잔치도 열린다. 종현 경로당 어르신, 대부도 19개 동장, 모든 어촌계장과 주민 등 150명 규모의 잔치가 예정돼 있다.

“단합이 모든 성과의 시작이자 끝”

김부열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했다. “종현어촌계원 전체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번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움직이는 어촌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는 “기쁘지만 기쁨만큼 책임도 커졌다”며, “어업 현장은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빨리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6회 창조의 여신 마고할머니가 풍요로운 섬 대부도를 만든 이야기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대부도 지명 중 마귀할멈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대부도의 마귀할멈은 우리나라 천지창조신화에 비견되는 마고할머니 설화와 관련이 깊다. 마고여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바다와 땅을 나누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화다. 이 설화의 마고할머니는 크다는 ‘한’과 ‘어머니’가 결합한 형태로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창조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마고할멈은 ‘마귀와 마녀’의 개념이 합쳐진 의미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웅녀(熊女)’에서 보듯이 모계사회(母系社會)의 높은 위상을 상징한다. 한국의 마고할머니는 대부도 지역의 바위, 섬, 산, 갯벌 등과 관련된 엄청난 힘을 가진 창조여신(創造女神) 설화와 매우 닮았는데, 대부도에 전해오는 지명(地名) 관련 설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시화방조제 수문과 방아머리 회전교차로 사이에 있었던 ‘마귀할멈공깃돌바위’ 설화이다. 이곳에 공깃돌과 너무나 닮은 큰 바위 다

섯 개가 있었는데, 마귀할머니가 자유자재로 요술을 부리던 공깃돌이라 하여 마귀할머니 공깃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임규상 1925년생, 방규현, 방아머리) 이 설화에서 마귀할머니가 방아머리 주변의 바위와 선돌, 바다로 길게 나온 느릿뿌리와 마여(馬磯), 나루설미, 정자(亭子)를 닮은 큰강정이, 노루여, 쌍섬 등을 만든 것이다. 지질 전문가에 의하면 방아머리 주변의 바위는 2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구의 생성초기에 탄생한 것이다.

두 번째는 행안국 마을의 ‘웃반채’인데, 옛날부터 웃을 놀던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술밭 속에 직경 70cm 정도의 평평한 큰 돌이 깊이 박혀 있으며 그 위에 마귀할멈이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자국이 여러 개 파여 있다(김영조, 1927년생, 대부남동).

세 번째는 대부남동 말부흥과 선감도 경계염전에 있는 할미섬 설화(說話)이다. 큰할미섬과 작은할미섬에는 할미꽃이 만발하였다하여 할미섬으로 불렸다고 한다. 큰할미섬은 대부염전 앞 남쪽에 붙은 섬으로 옛날 마귀할멈이 살았는데 풍도를 걸어 다녔다는 전설이다. 그리고 말부흥 선



창조의 신 마고할머니 전설을 품은 대부도 지명 지도

창장 동쪽에 ‘파산개미’ 지명이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 때 해적이 타고 온 ‘배들이 파산한 곳’이라고 한다(한승열 1922년생, 박영규, 임순성, 말부흥).

네 번째는 선감도 갯바탕의 선돌과 할미섬 전설이다. 어장으로 들어가는 갯벌의 크고 높은 바위였으나, 1940년대 마을 공유수면에 선착장을 만들면서 쓰고 조금만 남아 있다. 다음은 큰재산 선돌바위로 경기도평생대학 골짜기의 큰 선돌이다. 이 두 선돌을 마귀할멈 뒷본자리라 하였다. 그리고 마귀할미가 살았다는 할미섬이 있는데 선감학원염전을 만들면서 연육이 되었다(문기식, 1935년생, 선감동).

다섯 번째는 ‘발고랑’은 불도와 탄도 사이에 있는 갯고랑으로 옛날 마귀할멈이 불도와 탄도에 양발을 딛고 뒤를 보다가 엎어져 손으로 짚고 일어날 때 손가락으로 긁어 생겼다는 열

두 개의 큰 갯고랑이다. 선감도 선돌이 이 마귀할멈의 ‘똥자루’라고 한다.(장일수, 1941년생, 선감동)

이와 같은 대부도 마귀할멈 설화에서 손가락 자국의 빗물 화석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을 만들고, 물길을 만들어 ‘골짜기와 갯고랑’을 만든 것이다. 마귀할멈 뒷본자리가 선돌과 갯고랑이 된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분이 풍부한 ‘갯바탕’을 만들어 어패류가 많이 잡히게 하였다. 염전 옆에 있던 할미섬 설화에서 마귀할멈이 풍도를 오가며 섬과 산을 만들고, 갯벌을 막아 ‘염전(鹽田)’을 탄생시킨 것이다. ‘파산개미’ 설화에서 섬사람을 해치려는 온 해적의 배를 파산시켜 ‘섬의 수호신’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부도 마귀할멈은 풍요로운 섬을 탄생시킨 ‘위대한 어머니요, 창조의 여신’라 할 수 있다.

데스크 칼럼

상 받는 마을의 품격 공동체가 만드는 진짜 힘



김태창
편집국장

종현어촌계가 올해 유난히 빛난다. 연이어 겹겹이 수상을 이루며 동네 전체가 들쭉이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오래된 섬마을 특유의 온기가 묻어난다.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종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이어 행안국길양식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장관 표창까지. 전국 1,147개 공동체 중 단 한 지역에서 두 곳이 동시에 상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 그것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작은 어촌 마을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하지만 종현어촌계의 진짜 힘은 상을 받았다는 ‘결과’보다 그걸 마을과 함께 나누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21일 어촌계가 위탁 관리하는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회센터에서 열린 동네잔치는 그래서 더 특별했다. 누군가는 상금을 받아 잔치를 했다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축하 자리로 보면 절반만 보는 것이다.

이번 잔치는 수고한 어르신들, 마을과 바다를 지켜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고, 종현어촌계가 걸어온 협력과 단합의 길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김부열 어촌계장은 마을 어르신 뿐만 아니라 대부동 통장과 주변 어촌계장, 수협 관계자, 안산시 공무원까지 초대해 ‘함께 만든 성과’임을 분명히 했다.

섬마을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깊은 정성과, 바다를 삶의 뿌리로 삼는 공동체의 자부심이 이 자리를 채웠다. 요즘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다.

행정구역상 ‘대부동’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섬의 기운과 공동체의 질서가 살아 있는 곳이기 가능한 모습이기도 하다.

깊어가는 11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종현마을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2025년을 정리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앞서는 시대지만, 종현어촌계가 보여준 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모범이다. 상을 받았으니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잔치를 연 것이다. 이는 ‘성과를 마을로 돌려보내는 방식’이자 공동체의 품격이다.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 달력 한 장만 남는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종현어촌계가 보여준 태도일지 모른다. 한 해의 성과와 아쉬움을 나만의 것으로 붙잡고 있는 대신,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 마무리하는 것. 종현마을처럼 말이다. 바다를 품은 작은 어촌이 보여준 이 따뜻한 결말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작은 귀감이 되길 바란다.

종현어촌마을은 100여가구 70여분의 어촌계원이 만들어가는 작은 마을이다.

예전에는 제법 큰 마을이었지만 시대가 그렇듯이 다들 마을이 작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단합이 잘 되고 협동심도 대단해 바다어장을 지키자고 모이면 5~60명은 거뜬하다. 그것이 종현어촌계, 종현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종현마을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탁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c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추억의 자연상회와 함께 하는 특별한 순간



자연 발효로 빛은 15년의 정성
안상의 자랑 대부도 수제 포도와인
우리랑